

전남도 460억 투입 뿌리산업 육성 나선다

대불·해룡·광양 익신산단 뿌리특화단지 지정 순천·광양에 특화센터...표면처리·열처리 가공 지원

전남도가 올해 46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화학, 조선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드론, 친환경차, 로봇 등 지역 먹거리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조업 혁신에 나선다.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과 전남의 신소재, 세라믹, 레이저 등 첨단소재와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올해 46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화학, 조선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드론, 친환경차, 로봇 등 지역 먹거리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조업 혁신에 나선다.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과 전남의 신소재, 세라믹, 레이저 등 첨단소재와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특화센터에서는 뿌리산업과 연계한 30여종의 특화장비를 구축, 표면처리, 열처리 가공, 제품 불량 분석, 원가절감 공정 개선, 시제품 개발, 애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전남지역 600여 뿌리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표면처리와 열처리 공정 분야의 경우 전남지역에 전문 처리업체가 없어 수도권이나 경남권 전문업체에 의존해왔으나, 전남지역에 뿌리특화센터가 건립되면 장비와 인력을 활용,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남도는 또 대불·해룡·광양 익신산단을 뿌리특화단지로 지정해 오는 2020년까지 7년간 162억원의 예산을 들여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핵심 뿌리기술 개발, 공정기술 개선,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작업 등 열악한 공정을 자동화·스마트화·친환경화·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공정을 혁신하게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뿌리산업은 높은 주력산업 의존도 때문에 수요 산업과 함께 정체되어,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와 수요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이용섭 광주시장 4월 지지율 0.1%p차...시도민 관심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간간 미묘한 신경전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민에게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도에서는 미묘한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지사의 지지율은 58.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이 시장이 58.2%로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9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월 대비 1.5%p 떨어지는 등 하락세에 있는 반면 이 시장은 전월 대비 3.4%p 오르면서 김 지사와의 격차를 0.1%p차로 좁히는 등 상승세에 있다.

속도 높여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김 지사는 전남의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이행협약 체결식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10년째 지지부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찾아 지역민과 관광객을 만나고 있다. 또 경전선 광주승강장~순천 구간 전철화 등 전남의 미흡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취임한 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시도민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지켜내고 있다. 이 시장 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 난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한 뒤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시장을 직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최근 한 달간 민생경제 현상으로 들어가 기업으로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단체장들의 현안 해결, 현장 소통 노력이 무엇보다 반가울 것"이라며 "다만 이들 단체장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공동사안인 경우 협력을 통해 그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모두 공직 노후와 정치 경력을 살려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성과도 커지고 있는데다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시도민과의 접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020년까지 농어촌 공중목욕장 10곳 추가 건립 지원

전남도는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을 지원해온 '농어촌 공중목욕장'이 연간 92만 명이 이용하는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2020년까지 10개소 추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지원사업은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협약식.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9광주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과 문희성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공식 유니폼 24일 첫 공개된다

서울 JW메리어트호텔 패션쇼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대회기간 착용할 정장 유니폼을 비롯해 스포츠류 후원사인 아레나의 유니폼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이날 최초 공개되는 유니폼은 대회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대회기간 착용하게 된다. FINA(국제수영연맹) 임원, 심판, 의전요원, 기수 및 시상요원 등이 착용할 정장 유니폼과 자원봉사자, FINA패밀리, 조직위 직원 등이 착용할 스포츠 유니폼을 직

예정이다. 대회 정장 유니폼 부문 공식 후원사인 (주)신세계스포츠가 주관하는 이번 공식 유니폼 패션쇼에서는 대회기간 종사자들이 착용할 정장 유니폼을 비롯해 스포츠류 후원사인 아레나의 유니폼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이날 최초 공개되는 유니폼은 대회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대회기간 착용하게 된다. FINA(국제수영연맹) 임원, 심판, 의전요원, 기수 및 시상요원 등이 착용할 정장 유니폼과 자원봉사자, FINA패밀리, 조직위 직원 등이 착용할 스포츠 유니폼을 직

종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날 부대행사로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시상메달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형상화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했다.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패션쇼에서 선보일 유니폼은 이번 수영대회를 홍보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이다"며 "선수들과 임원, 자원봉사자 등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보험료 80% 지원

전남도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모내기작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선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 원은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ha(3000평) 기준 재해보험 가입 시 약 40만원의 보험료 중 실제 농가는 20%인

약 8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있어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든 전망이다. 벼 유기인증 농가는 자부담 20%까지 전부 지원함에 따라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 보장 내용은 주계약의 경우 태풍·우박·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 등이다. 특약은 과별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8000여ha로 전체 벼재배 면적의 57%가 가입했다. 이 가운데 가뭄·태풍 등 3만3000ha에서 피해를 입어 2만여 농가에서 63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한국전기공사협회